대전 孝 문화진흥원 전국최초 출범

대전을 대한민국 효 메카도시로 확립하고, 국가 브랜드화를 목표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다.

효 메카·국가 브랜드화 목표, 중구 뿌리공원 8343㎡ 조성, 다양한 매체 통해 체험·교육 대전 효문화진흥원이 31일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효문화진흥원은 중구 뿌리공원 내 연면적 8342.0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전체 사업비만 245억 6200만원(국·시비 50%)이 투입됐으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

주요 기능은 △효문화 진흥정책 연구 △효문화 사업 발굴 및 콘텐츠 개발 △효문화 전문인력 양성(체험 및 교육) △대전형 효 특화사업 운영 등이다. 또 전시·체험실을 비롯해 교육·강의실, 연구실, 도서실, 대강당 등의 시설이 들어서 운영된다.

전시체험 시설은 효이해, 효느낌, 효공감, 효실천, 효나눔 등 5개 실로 나뉜다. 효이해실은 효의 정신을 기반으로 기원과 형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역사 속 효 사상이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됐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효느낌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영화, 문학, 미술 등에 나타난 효가 전시돼 있다. 효공감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효 이야기를 동영상, 패널, 유물 등을 통해 알아보는 공간이다. 효전시실은 인성의 깊을 따라 효를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효 명언, 가정에서의 효, 국가를 선도하는 효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효행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효나눔실은 세계적으로 퍼지는 효 한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돼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일은 휴관한다. 또 전시체험관 요금은 어린이·청소년(3세 이상 19세 미만) 2000원(20인 이상 단체 1500원), 성인 3000원(단체 2500원)이다.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효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의 괘

'지뢰 復'

이번달부터는 권문의 명 역술가 귀담 선생님이 그달의 괘를 뽑아서 해설하는 컬럼을 고전강독에 대응하여 연재하고 충복되지 않게 64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뢰 復' 의 날이 밝았다!

봄이요 변혁이요 復(회복)의 기운이 움트는 이 역사적이 시기에, 이달은 지뢰복의 괘가 나왔다.

지뢰복(地雷復) : '復'은 되돌아 온다는 것이니 위 그림과 같이 땐 밑에 양기가 하나가 위의 5개의 음기를 뚫고 서서히 올라온다는 것이니, 지난 시대의 적폐를 물아내고 건전한 새시대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걸 상징한다.

지난날 만주 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면 독립군과 구한말 의병장의 태극기에 비장하게 쓰인 글자는 '불원복(不遠復)'이다. 곧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이 온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易에서는 시계절의 순환을 음과 양의 작용에 의한 소식영허(消息盈虛-사라지고,쉬고,가득차고,비어지고)의 개념으로 보아 봄과 여름은 양기가 자라나는 계절에 속하고, 가을과 겨울은 음기가 왕성해지는 계절로 본다.

계절상으로 보면 우레(雷)가 양기운으로 발동하는 계절은 입춘(立春)으로부터 우수(雨水)와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까지 인데, 특히 입춘은 양기가 처음 싹을 터 활동하는 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생명의 왕성한 탄생과 같아서 얼어붙었던 대지는 풀리고 땅에서는 풀과 나무에 새싹이 나오고 따뜻한 봄볕에 만물이 소생하니 易에서는 봄을 오행상 靑色(green)으로 분류를 하고 방위로 보아 해가 처음 떠오르는 동쪽을 상징하고, 五常으로 보면 仁에 해당한다.

절기상 입춘에 조상들은 집앞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는 '입춘방'과 같이 양의 특성은 만물을 살리고 바르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덕이 있다고 본다.

權英一
(부정공파 36세)

하늘에서 뜨거운 햇볕이 대지를 비추면 만물이 싹을 틔워 자라나듯 태양의 열기에 의해 만물이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는 자연계의 끊임없는 순환원리를 이렇듯 하나의 양기운이라는 부호로서 대신하여 易의 근본 이치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입년의 사계절을 나타내는 봄의 어원 역시 벌(陽)과 뜻이 일치한다. 봄은 어원을 나타냄에 있어 봄→볼음→보음→봄으로 변천해왔다. 영어 spring도 뿌어 오르는 것이니 봄과 같은 의미이다.

'春' 자는 햇볕을 받아 풀이 돋아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생각하여 보자면,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되 도는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역경(易經)이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한다는 사실이 곧 진리이고, 아주 쉬운 것이니…

인간이라면 을고 그름을 본능적으로 양심(羞惡之心)에 의해 알 것이니…

봄이 오는 길목에서 더욱 빛나는 조선의 명신 신흠의 詩가 생각나 보니…

그 시를 퇴계와 두향의 로맨스의 주제로 만든게 보이나 그것은 거짓이다. 연도가 신흠이 4세에 퇴계가 죽은 것인데 어찌 말이되랴- 그래도 릭선이 주는 교훈은 훼손되지 않으리~

이 신흠(申欽)의 시는 당시에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서 유명하다.

이 시는 김구 선생이 서거 4개월전 쓴 휘호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지막 휘호였다.

"梧千年老恨嚴曲(오천년호탄장곡)이요
梅一生寒不賣香(매일생한불매향)이라
月到千虧終本質(월도천휴여본질)이요
柳經百別又新枝(유경백별우신지)라"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빛은 천 번 이지러져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백 번 찢어내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다"

❖ 코리아를 세운 權門의 千年祕傳

'안동 고삼주(苦蔘酒)를 아시나요'

고삼주 전수자 권양숙(검교공파 부녀회장)

안동소주의 고장인 안동에서 주도 13도짜리 발효 약주가 1천 년 넘게 전승돼 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전통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동 권씨 한 파종손(검교공)의 집안 가양주로 알려진 이 술은 백일주가 아닌 백팔십일주이기 때문이다.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무려 6개월씩이나 발효시킨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달성 하향주가 백일주로 빚는 것만해도 놀라운 발효 기법으로 꼽는데 6개월 발효라니…" 이 희한한 술 제조자의 집으로 안내한 전통주 애주가 이상호(66·하회탈춤 인간문화재)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보통 석 달만 넘으면 술이 초가 돼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다니."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우리 한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 발효비법 중 한 가지가 이제 그 베일을 벗는 것인가. 가슴이 뛴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삼주와 고창전투, 안동 도시 탄생의 비밀

"안동 태사묘에는 고삼주를 빚어 왕건군을 도운 안중 할머니의 넋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왕건군을 추격하던 견훤군이 안동 병산서원 앞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고창전투'에서 무참히 패하고 만다. 기세등등한 견훤군이 패잔병에 가까운 왕건군에게 일가에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안동 고삼주에 그 답이 있다. 고삼주의 전통 제조 비법을 옛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안동시 광화동 권영숙(62)·수운잡방 연구회 이사) 씨는 먼저 고삼주의 내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대승한 견훤군은 도주하는 왕건군을 추격하다 안동 인근에 이르러 안중이라는 이름의 주모를 만난다. 견훤군이 안중의 객주 마당에 머물면서 장독마다 가득 찬 달고 향이 좋은 고삼주에 반한다. 견훤군은 연전연승에 취해 고삼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왕건군의 급습을 받아 일거에 격멸됐다. 929년 고창 병산전투 당시 목숨을 잃은 견훤군의 수가 8천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은 안동지역 향토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롯된 고삼주의 역사는 올해로 1,089년쯤 된다. 당시 안동의 세 집안(김선평 권행 장갑)은 고려를 도와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후 태조 왕건으로부터 임금의 스승이라는 '삼태사' 칭호를 받는다. 그들이 바로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시조인데 이때 고창군은 부로 승격되고 지명도 '동국을 평안하게 해 주었다'는 의미로 안동(安東)으로 바뀐다. 삼태사의 용맹스런 활동과 함께 고삼주와 주모 안중의 기지는 고려를 세우고 안동이라는 도시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 3대 문중은 매년 태사묘에서 삼태사 제사를 지내고 난 뒤 따로 향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모 안중이 모셔져 있는 안보당에 올리는 제사다. 고삼주를 빚은 안중 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안보당 중수기 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령군수와 풍기군수를 지낸 친정 증조부에게 어릴적부터 고삼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지요." 조선 말엽 의성군수를 지낸 권병선이 친정 증조부인 권 씨는 고삼주에 대한 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일한 후손으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고삼주에 어려 있는 전설의 우리 전통주 비법

다식과 약과를 안주로 고삼주 주안상이 나왔다. "이게 8년 된 고삼주"라며 잔을 내민다. "무슨 약주가 8년이나 묵었다카노." 잔을 받은 애주가 이 씨는 흠칫 놀란다. "삼균을 하지 않고 어떻게 8년을 묵히나." 고개를 가웃가웃한다. 빛깔이 '은은한 호박색'인 고삼주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한숨에 들이켠 이 씨는 김천 과하주나 문경 호산춘과 비슷하고, 맛이 달짝쌉싸래하고 아주 순한 편이라고 했다. 이 씨는 법씨 이집을 찾아 고삼주를 맛본 게 세 번째다. 처음엔 술이 순한 것 같아 맥주컵으로 마셨지만 숙취가 전혀 없고 뒤끝이 깨끗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목안에 넘어가는 고삼주의 느낌은 동그랗다. 저도주인데도 허뿌리를 자극하는 게 특이하다.

"친정집에서는 지병이 있는 식구들에게 조약으로도 썼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속앓이와 장염에 고삼주를 조금씩 먹였지요." 권 씨는 삐거나 담들리면 고삼을 찧어서 환부에 붙였다고도 한다. 이 고삼은 안동지방에선 너삼으로도 불리는데 한약방에서는 약재로 사용한다. 야산에서 흔히 밭견된다. 일부 고문헌에는 말린 고삼에 증류한 소주를 부어 약상을 우려내 고삼주를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기도 하지만 권 씨가 전승한 방식은 고두밥과 누룩을 1대 1로 섞은 후 3, 4일 발효시켜 밑술을 만들고 그 후 술을 걸러내 밑은 약주에다 찹쌀고두밥과 고삼을 다시 넣고 장장 6개월이나 발효시킨다. 이때 고삼은 야생에서 채취해 말려 둔 것을 쌀뜨물에 이틀에 한번씩 얼흘간 반복해 불려내는 방식으로 독성분을 제거한 다음 사용한다. 술에 담가 약성을 우려낸 후 3개월쯤 후에 건져낸다. 그 이후 다음 3개월을 더 발효시켜 고삼주 빚기를 완성한다. 이때 술한 말에 1되 비율로 골도 섞는다. 고삼이 너무나 쓴 까닭이다. 6개월이 지나면 찹쌀고두밥은 그냥 다 삭아 버려 건더기는 저절로 없어지면서 맑은 술이 된다. 빚어진 술은 상온에서도 5년이고 10년이고 주질 변화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 신기하기 그지없는 부분이다. 고삼의 무슨 성분이 이렇게 긴 유통기한을 유지하는지, 인체엔 해롭지 않은지 등 고삼의 성분 분석은 더 연구할 숙제이지만 마치 약주와 청주를 끓여 세균을 사멸시킨 살균주와 같아진다.

담금술로 만드는 苦蔘酒

● 재료 및 제조방법

▶ 재료

- 너삼뿌리 100g, 설탕100g, 소주 1,800ml

▶ 제조방법

1) 쓴너삼뿌리를 채취하여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늘진 곳에서 완전히 말린다
2) 준비한 재료들을 용기에 넣고 소주와 설탕을 붓고 시원한 곳에 밀봉 저장한다
3) 3~4일간 1일 1회 용액을 가볍게 흔들어 준다
4) 3개월후 약제를 완전히 건져내고 여과지로 거른후 다시 밀봉 저장한다
5) 6개월 이상 숙성후 복용한다.
- 1년이상 오래 숙성 시킬수록 맛이 부드러워 진다.

▶ 효능

- 맛이 아주 쓰고 인삼의 효능이 있어
- 소화불량·신경통·간염·황달·치질 등에 처방한다.
- 건위제로 식욕부진이나 입맛이 떨어진경우에 좋은 약술이다

▶ 복용법

- 1일 2회 매회 20cc 정도 조석으로 식후에 복용한다
- 맛이 좀시 쓰므로 물이나 다른 음료를 첨가하여 복용하면 좋다.

▶ 주의사항

임산부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복용에 주의를 요한다.

▶ 총론

성질은 차고[寒] 맛은 쓰며[苦] 독이 없다. 열독풍(熱毒風)으로 피부와 살에 한데가 생기고 적라(赤癩)로 눈썹이 빠지는 것을 치료한다. 심한 열을 내리고 잠만 자려는 것을 낫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눈물을 멎게 한다. 간담의 기를 보하고 잠복된 열로 생긴 이질과 오줌이 황색이면서 적색인 것을 낫게 한다. 치풍(癡風)과 아창(惡瘡)과 음부에 생긴 악창을 낫게 한다.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고삼]이라 하고 한방에서는 고미건위제(苦味健胃劑)로 많이 쓰며 이뇨, 해열,진통, 구충 등에서 쓴다.

고삼은 살균,살충작용이 강해서 잎을 삶은 물을 무좀이나 땀띠 등 피부병에 바르거나 농약의 살충제로 쓴다. 대만 등지에서도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삶은 물을 환부에 바르고 마신다고 한다

Tax Accounting Corporation
현빈세무법인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대표세무사 권 영 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종원 감사
● 복아공파 34世 경북포항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조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